

職業能力開發研究
 第13卷(3), 2010. 12, pp. 123~146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공무원 채용 시험 준비생의 진로 선택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정 연 순**

이 연구는 청년층이 무엇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는지, 어떤 영향과 특성이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청년층 진로 선택 과정을 이해하고 진로 교육에 시사점을 얻고자 공무원 채용 시험 준비생들의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무원 시험을 노동시장에서의 약자에게도 기회가 열려있는 공정한 경쟁으로 인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하며,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하고 있었다. 직업 선택의 기반이 되는 대학 전공은 적성이 아니라 점수에 의해 선택되는데, 이 과정에는 부모의 후원이 강하게 개입하며 자녀의 진학과 취업이 일종의 가족 비즈니스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년들은 평생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를 위해 다양한 가능성에 열린 학습자로 성장하기보다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험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청년층의 일의 세계 이행을 그들의 직업 선택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당사자들의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해하고자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주제어: 진로 선택, 평생고용가능성, 청년실업, 일의 세계 이행,
 공무원 시험

투고일: 2010년 10월 31일, 심사일: 11월 10일, 게재확정일: 12월 16일

* 이 논문은 한국평생교육학회 2009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cyshjy@hanmail.net)

I. 서론

청년기에는 교육세계에서 일의 세계로의 이행이 본격화된다. 이때의 진로결정과 선택은 이후 경력개발의 기반이 되며, 직업 세계의 초기 경험은 다음 단계의 직업 경험을 이끄는 방향타가 된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년들의 단계적이고 선행적인 노동시장 이행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높은 청년 실업률은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고학력 실업자가 많고 취업준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상이다. 특히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은 구직이 쉽지 않을 경우 계속 취업을 시도하기보다는 취업준비를 택하면서 취업을 미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권혜자, 2010). 청년층이 취업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공무원이다. 청년층 취업 준비 영역 중 공무원은 34.4%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9). 청년 실업의 심화와 고학력자의 증가가 맞물리면서 공무원직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괜찮은’ 일 자리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몇 년 간은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증가세가 폭발적이다. 2000년대 들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은 1980년대에 비해 거의 3배가량 높아졌으며 낮은 직급일수록 응시자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합격자의 분포를 보면 고졸 이하의 비중이 급감하고 대학 재학 및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의 구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급속한 고학력화의 결과로 민간 노동시장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당수 대졸자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결과로 풀이된다(오호영, 2006).

지나치게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상당한 낭비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는 일의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 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지식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준비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장기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숙련형성이나 일의 세계로의 이행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청년 인력의 유향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도 공무원 시험 준비가 노동시장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이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오호영(2006)은 지방 대생일수록 공무원시험 준비자의 비율이 높고, 가족배경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영향을 미치며,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민간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지식 및 숙련형성에 부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실태 및 시험 준비가 첫 일자리 진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박성재와 송민수(2010)의 연구에서는 고시는 주로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7~9급 공무원 시험은 여성과 지방대학생들의 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험 준비가 성(性)과 출신대학 소재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 시험 준비자들은 비준비자에 비해 취업률이 낮고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길며, 비정규직 취업자 비중이 높아 일자리 질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일(2009) 역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비준비생에 비해 취업률과 직장만족도가 낮다고 밝히고 있다. 채창균과 김태기(2009) 역시 공무원 시험 준비가 취업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현황과 실태를 밝히고 이에 기반을 두어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직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 당사자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계량적 연구는 현황 분석에 유용하지만 청년층의 취업 준비 실태와 취업 유예 현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진로선택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질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과 경로를 이해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경험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직업 선택과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이해하는 데에 적합한 사례가 되어줄 것이다.

II. 청년층 진로 선택

개인의 진로 선택과정을 설명하는 진로 이론은 워낙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하지만 크게 서너 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Duffy & Dik, 2010; Greenhaus et. al., 2000). 첫째, 개인과 직업 환경간의 연결 및 조화에 주목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개인의 진로 선

택을 각자에 고유한 흥미, 가치, 기술 등이 가장 적합하게 연결해 가는 행동으로 본다. 개인의 성격특성과 그에 부합하는 작업환경의 연결을 강조한 홀랜드(Holland, 1985), 업무조정이론(theory of work adjustment)을 제안한 데위스와 로프퀴스트(Dawis & Lofquist, 1984)의 이론이 대표적이다. 둘째, 발달 과정으로서의 진로 선택을 강조한 관점이다(Savickas, 2002; Super, 1990). 이 관점은 진로와 직업 선택은 단일 시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한다고 본다. 특정 진로를 선택하는 결정은 중요한 생애 사건과 경험의 누적적인 발달 결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문화적 영향을 강조하는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이다(Krumboltz, 1996; Lent, Brown & Hackett, 1994). 이 관점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면서, 일과 특정한 진로 영역에서 개인의 학습 경험, 가정 및 학교와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 등이 개인의 진로 의사결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진로 선택의 과정과 결과는 전적으로 개인적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특정한 직업군이 선호되는 것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이 연구는 공무원이라는 특정한 직업군을 선택하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진로 선택에 주목하면서, 사회학습 이론에 기초하여 청년층의 진로 선택과정에서 작동하는 사회문화적 영향력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무엇이 ‘좋은 일자리’인가에 대한 인식은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진로 선택은 전적으로 심리적이거나 독립적 변인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힘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 현상의 흐름에 포함될 것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년 유휴인력이 많은 주된 이유는 당장의 취업보다는,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해 취업 준비를 선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되므로 청년층이 어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라고 인식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서우석, 2008). 우리나라 청년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좋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좋고 안정적으로 인식되는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같은 직장들이다(권혜자, 2010).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 세 영역에 취업하고자 하는 응답자는 67.5%인 반면, 응답자의 9.9%만이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0).

전통적으로 노동경제학에서는 노동의 보상으로서 높은 임금을 ‘좋은 일자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삼아왔다(방하남·이상호, 2006). 그러나 최근에는 폭넓은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다면적이고 총체적인 ‘좋은 일자리’의 개념과 척도가 구성되고 있다. Clark(1998)는 ‘좋은 일자리’ 여부를 임금, 노동시간, 장래 전망, 노동 강도, 직무 만족,

인간관계라는 여섯 개 변수로 측정하였다. OECD 회원국가에서 수집한 노동자 7,000명의 표본 정보를 분석한 결과 ‘좋은 일자리’를 구성하는데 임금은 가장 덜 중요한 요인에 속하며, 고용안정성과 일의 흥미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Ritter & Anker(2002)의 연구에서도 노동자의 주관적 판단과 평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표를 구성하고자 했으며, ‘종합적 직무만족도(total job satisfaction)’를 좋은 일자리의 지표로 삼고 결정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임금, 부가급여, 일의 성격, 자율과 독립성, 승진가능성, 기술향상가능성 등 일자리와 관련된 6개의 주요 측면이 지표로 포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임금과 근로시간을 ‘좋은 일자리’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노동경제학적 접근의 협소함을 넘어서서, 개인의 심리적 만족감이 좋은 일자리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연구를 종합하면 ‘좋은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임금이 높고, 사회적으로는 직업 위세가 높으며, 심리적으로는 직무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 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개인의 가치에 따라 현실적으로 달리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위세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임금보다는 지위와 명성을 중심으로 한 기준이 더 강력하게 작동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 응시생의 급증은 이것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인식됨을 의미하는 바,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 기준이 여기에 작동하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이 왜 공무원을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분석은 이후 진로교육과 진로지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과 절차

이 연구는 청년들의 진로 선택 경험을 분석하고자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질적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질적사례연구는 ‘맥락’과 ‘발견’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일반 질적 연구로서의 특징을 갖지만 프로그램, 사건, 활동, 개인들과 같은 동일 단위의 ‘경계 지어진 체계(bounded system)’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이 다른 질적 연구 방법과 다르다(Creswell, 1998). 연구자는 청년 실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청년층의 취업 유예 현상에 관심을 갖던 중, 이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선택하였다. 공무원은 우리나라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직업이라는 점, 공무원 중 낮은 직급일수록 최근 시험 응시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 공무원 시험 준비는 최소한 몇 년간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점 등에서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경험은 우리나라 청년층들의 진로 선택의 특성과 취업 유예 현상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하였다.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특정 직업의 특정 직군을 진로로 선택한 개인들의 집단이며, 이를 위해 동일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경계 지어진 체계'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연구 사례의 맥락으로서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살펴보자. 9급 공무원 채용은 지필고사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으로 이루어진다. 지필 시험은 5개 과목으로 치워지는데 직렬별 과목이 다르다. 총 26개 9급 공무원 직렬에서 국어, 한국사, 영어는 공통적으로 포함되며 이외에는 직렬별 특성에 따라 시험 과목이 달리 편성된다. 가장 응시생이 많은 직렬은 일반 행정직(국가직, 지방직), 세무직(국가직, 지방직), 사회복지직 등이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2009년도 국가직의 경우 64:1, 지방직은 80: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 2010). 7-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의 평균 시험 준비 기간은 17.7개월로 나타나고 있다(박성재·송민수, 2010). 시험 준비는 노량진에 밀집해 있는 전문 학원의 강의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지필고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주로 심층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면담 접촉점을 찾기 위해 연구자는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온라인 카페인 '구꿈사(9급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게시판 글들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게시판 관찰과 분석을 통해, 공무원 시험 준비 청년들의 직업 선택 과정과 생활에 대한 선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진로 선택 과정과 생활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유게시판'과 '합격 후기를 읽으면서 반복되는 주제들을 뽑을 수 있었는데 이는 대학진학과 학과 선택, 취업 경력, 공무원 시험 결정의 이유, 시험 준비과정의 보람과 어려움, 가족 관계와 후원 여부, 향후 진로계획 등이었다. 이러한 주제들은 이후 면담 질문에 반영되었다.

다음은 '구꿈사'에 청년 실업 문제 연구의 일환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면담하고자 한다는 공지를 올려 참여자를 모집했다. 면담참여자는 1년 이상 시험을 준비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였고, 면담 지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면담 질문은 공지와 함께 미리 안내하였다. '구꿈사'를 통해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총 10명이었다. 그런데 이중 한명은 면담

후 자신의 면담을 연구에 활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분석은 총 9명의 면담을 대상으로만 해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기본정보

| 참여자 | 나이 | 전공 | 경력 | 현재 상태 |
|----------|-----|-----------|----------|-------------------|
| 참여자 1(남) | 27세 | 안경공학과(휴학) | | 행정직 합격 발령대기 중 |
| 참여자 2(여) | 30세 | 컴퓨터공학과 | IT개발 | 행정직 준비 중 |
| 참여자 3(남) | 30세 | 법학과 | | 행정직 준비 중 |
| 참여자 4(남) | 27세 | 행정학과 | 외국어학연수 | 세무직 준비 중 |
| 참여자 5(남) | 30세 | 항공우주공학과 | | 세무직 합격 발령대기 중 |
| 참여자 6(여) | 23세 | 법학과(휴학) | | 행정직 준비 중 |
| 참여자 7(여) | 27세 | 화학과(석사) | 제약회사 연구직 | 행정직 준비와 아르바이트 병행 |
| 참여자 8(남) | 32세 | 경영학과 | 중견기업 3년 | 세무직 합격 발령대기 중 |
| 참여자 9(여) | 30세 | 식품영양학과 | 외식업체 4년 | 보건의직 준비와 아르바이트 병행 |

게시판 분석과 심층면담은 2008년 9월부터 12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 사람당 면담 시간은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사이였다. 면담은 사전에 준비된 질문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그들이 대화를 주도할 때에는 대화를 흐름을 끊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하였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고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삼았다.

면담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면 이를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는 ‘지속적 비교법(constant-comparative method)’을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녹음자료와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듣고 읽으면서 다양한 내용 자료(data)들을 분리하여 개방형 코딩(open coding)을 수행하고,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주제와 패턴들을 범주화(category)하였으며 여기에 이름을 붙였다. 구성된 범주는 총 6개로 ‘공정한 경쟁에 의한 채용’, ‘고용안정성’, ‘균형 잡힌 삶의 가능성’, ‘점수에 맞춘 진학’, ‘가족의 강한 후원’, ‘자격증 준비 중심의 진로계획’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형성된 각각의 범주안의 자료들을 다시 읽고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형성하였는데, 앞의 세 범주는 진로선택의 기준이자 이에 부합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특성에 대한 판단으로, 뒤의 세 범주는 진로 선택과 준비 과정에서 작동하는 특징들로 구분하였다. 이 두 주제들에 따라 다시 하위 범주를 배치하고 이야기로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동료 연구자와의 지속적 논의와 의견 교환을 통해 범주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기초 분석 결과에 대하여 청년 고용 관련 연구자 3인의 자문을 받는 등 동료 연구자 감사(peer review)를 실시하였다.

IV.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과 진로 선택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어떤 기준으로 진로를 선택했는가? 이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진로 선택의 기준을 분석한다. 이들은 배경 변인과 관련 없이 공정한 경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직업, 고용이 안정된 직업, 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얻고자 하였다.

1. ‘성취 신분’: 시험 점수만으로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연구 참여자들은 공무원 채용 시험은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 가능한 공정한 경쟁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출신 학교, 전공, 나이, 학점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지원이 가능하며 일정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어떤 자격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만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점에서 참여자 3은 공무원을 ‘성취 신분’이라고 말한다.

처음부터 공무원 생각했었고요. 어차피 성취신분이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게 자기만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니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니까 그렇게 좀 사회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지역 그런 대학 아니면 한계 같은 게 좀 있으니까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선 시험이라는 게 가장 관찰을 거 같아서 준비하게 됐습니다(참여자 3).

지방대 출신이라는 배경 조건이 취업에 불리하다고 여겨 공무원 시험을 택했다는 참여자 3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 스스로 취업에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크게 보면 여성인 경우, 불리한 학력조건, 나이가 많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하나같이 여성으로서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택했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안 붙으면 취직하려고 했거든요. 솔직히 취직자리도 알아보고, 그런데 다들 이래요 “결혼 안 했어요? 이제 결혼하겠네? 애 낳고 어떻게 하려고?”. 그럴 거면 차라리 면접 보러 오라고 하지를 말던가. 그걸 다 감수하고 이력서를 냈고 자기들이 붙었으면 그런 거를 묻지 말아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공무원 시험)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자한테는 공무원이 최고 같아요(참여자 9).

참여자 9의 사례는 결혼 적령기 여성이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다가 형편이 어려워 다시 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남은 선택은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로 되돌아오는 것뿐이었다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은 불리한 학력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 공정한 경쟁으로 여겨진다. 취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요즘은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학점 관리 등을 염두에 두고 취업 준비에 돌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대학 시절을 취업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보냈거나, 지방대 출신인 경우 기업체 채용에서 요구되는 우선 조건들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진로 선택의 폭이 상당히 제한된다. 이때 공무원은 그야말로 과거를 묻지 않고, 시작하는 지금 시점부터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도전이 가능한 직업이라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상당히 매력으로 다가온다.

제가 학사경고를 두 번 당했거든요. 군대가기 전 학교 다니면서 학사경고를 두 번 당하니까 거기서 첫 단추가 어긋나니까, 학점이라는 게 복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했던 거 같아요. 공무원이라는 건 학점이나 제한이 없잖아요. 제가 사회에 나가서 (요구되는) 요구조건이 안 되었잖아요? 사회에서는 어떤 스펙을 요구하는데 제가 신경을 못 썼던 거 같아요(참여자 3).

(아르바이트하면서 즐겁게 지내다가) 정신 차리니까 4학년이더라고요. 영어 공부도 안 해놓고 막… 영양사가 영어공부가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런 말 하면 부끄러운데 내가 토익(TOEIC)이

4학년 때까지만 해도 550이 거의 안 넘었거든요.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게 550부터예요(참여자 9).

지방대 출신에다 학점도 좋지 않은 참여자 3이나, 영양사도 기업이나 병원에 취업하려면 공인 영어점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졸업이 가까워서야 알게 된 참여자 9에게 공무원 시험 준비는 “현실적”인 선택이다. 안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나이는 취업에 작용하는 중요한 걸림돌 중의 하나이다.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 남성의 경우 30대에 접어들면 자영업이 아닌 한 노동시장에서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게 된다. 더구나 청년들의 취업 적령기는 상대적이어서 졸업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중요하다.

스물일곱이 적은 나이라고 생각 안 해요. 솔직히 나이보다는 졸업한 지 얼마나 되었는가가 중요하죠. 기업 인사 담당자들도 졸업한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취직을 못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보기 때문에 더는 하기도 어려워요. 저도 졸업한 지 1년 넘어가면서 기업체 들어가는 거 포기했어요. 솔직히 지금이라도 기업에 채용되지만 한다면 공무원 시험 준비접고 취직할 생각 있어요(참여자 4).

대학 4학년 때부터 취업을 시도하다가 모두 실패하고, 결국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택한 참여자 4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취업 경쟁에서 나이에 대한 강박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졸업하고 시간이 지난수록 취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휴학을 반복하면서 졸업 자체를 유예하기도 한다. 취업 경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청년들의 노동 시장 신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현실 속에서 연령 제한이 없는 공무원 시험은 매력적인 선택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2. 고용안정성: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일자리

대규모 고용창출이 가능했던 산업화 시대를 지나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이루어내기보다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는 데에 힘을 기울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무엇인가 대단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직업보다는 소박하지만 안

정되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 공무원직을 선택했다고 한다. 급여가 높은 직장이 있다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그만두고 취업을 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참여자 9는 자신에게 그런 직장이 있을 리 없다고 잘라 말한다. 설혹 현재 그런 조건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실직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불안하게 일하기는 싫다고 한다.

(연구자: 만약 웬만한 대우를 해주는 직장이 있다면 취직하겠나?) 그런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만약에'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직장이 정년이 보장된다면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불안에 또 불안 그런 쪽에서는 일하기 싫어요. 저는 나이 들어서까지 일을 하고 싶고 잘릴까 봐 걱정하는 이런 생각은 하기 싫어요(참여자 9).

이들은 경력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실직의 위험과 불안을 경험하였다. IMF 이후에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을 보면서 해고가 자신에게 닥쳤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참여자 8, 결국 언젠가는 회사에서 밀려날 텐데 정작 회사를 다니면서는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는 참여자 7의 언술에서 우리는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닥칠 실직이라는 위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다.

자기 계발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의 상황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도 많이 달랐지만, 여자분들 보면 결혼을 안 하셔야 서른다섯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서른다섯이 된다면 그 생활이 너무 바쁘니까 자기 계발 할 시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서른다섯 됐을 때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를 퇴직하면(참여자 7).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라도 조건을 가리지 않고 취업한다면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실업난이 맞물리는 가운데 청년들의 '일자리 눈높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보기에 대부분의 일자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많은 대학 친구들이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거나 가족 사업을 돕고 있다고 하는 연구 참여자 3은 이런 취업은 "앞이 안 보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공무원은 성취감이 적더라도 미래를 안정적으로 예측하면서 삶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한 직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취직 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20년, 30년을 내다보기엔 좀 보통은 앞이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비정규직이거나 계약직이라든가 그런 질이 좀 낮으니까요. 지금 뭐 밥 못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밥을 못 먹는 사람은 없지만 어떻게 생활하면 좀 더 윤택하고 원활하게 살 수 있느냐 그 문제인 거 같은데 그렇게 따져보면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게 가장 매력에 있는 거 같아요. 인정적이잖아요? (참여자 3)

어떤 일자리를 가지는 “밥 못 먹는 사람은 없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은 예측불가능의 불안을 해소하고 위험을 피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감지하는 삶의 위험에는 실직 뿐 아니라 경력 도전의 실패도 포함된다. 높은 연봉에 도전하는 일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는 연구 참여자 5, 안경사로 자기 사업에 도전하는 것의 위험성이 크다고 간주한 연구 참여자 1은 모두 과거에는 ‘성취’로 간주되었던 도전을 ‘위험’이라고 인식한다. 성공은 드물고 위험은 산재한 사회에서 공무원 시험 선택은 그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대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제약회사에서 영업을 잘하면 연봉이 많다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팔아야 하는 거잖아요. 진짜 정직하게 돈이 나오는 거니까 너무 위험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4학년 때 다른 걸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5).

(안경학과 출신들이) 결정적으로 안경점을 차릴려고 그러면, 40대 정도 되면 안경점을 차려야 하는데 자기 돈 4억 정도가 들어가요. 4억이면, 그러면 일단 집 보증받고 40대까지 2억을 모은다고 해도 2억을 해서 차린다고 해도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그게 큰 부담이 있어서 되게 많이 힘들죠. 취업 걱정은 없는데 나중에 40대나 그게 걱정이죠(참여자 1).

이들의 직업 선택에서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위험을 수반한 도전과 성취보다 훨씬 강력한 유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삶의 균형: '자기 생활'이 가능한 일자리

취업한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일을 통해 자기를 실현하거나 발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소진되어 갔던 경험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장시간 근무, 고된 근무 조건, 낮은 임금, 발전의 여지가 없는 폐쇄성 같은 것들이 이들이 직업 세계에서 겪은 어려움들이다. 직업 현실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열악했으며, 그렇다고 참고 견디면 이후의 장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IT 개발자로 일했던 참여자 2나,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했던 참여자 7에게 일의 경험은 전문가로서의 긍지보다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는 기억으로 재현된다.

(IT 개발자로서) 정말 하는 일이 다 싫어요. 왜냐면 야근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 남들 일 안할 때 일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생활은 불규칙하고 알아주는 사람은 적고요. 작은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집에 안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는 뭔가 만들고 TV에서 21세기 이상적인 직업해서 하는데 막상 실상은 그렇지 않고(참여자 2).

만날 10시에 퇴근하고 출근이 워낙 빨라서 아침에 5시면 일어나야 되는데 집에 가면 1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잠을 거의 잘 수가 없으니까요. 몸이 축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거에 맞춰서 생활을 못하겠더라고요... 아, 나 이러다 죽겠다.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참여자 7).

전직 경력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종합해보면 청년들의 직업 선택에 있어서 문제는 취업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다. 과거 노동자들이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평생고용이라는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다.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야하지만, 회사가 노동자를 평생 책임져주지 않는 현실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은 결국은 자기 책임일 수밖에 없고, 자신을 소진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개인의 책임이 되었다. 아래 참여자1의 얘기에서는 노동자들이 자기를 소진시키지 않기 위해 어떻게 스스로를 돌보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

(제 친구들은 직장이) 자주 바뀌어요. 한 안경점에서 계속하는 게 아니라. 제 친구들은 2년 차 인데 보통 세 번 바뀌요. 안경점을... 자기 충전의 시간이라요. 다니다가 좀 쉬다가 다른 안경점에 가서 일하고(참여자 1).

이들이 택한 9급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그 자체로 자기를 실현하거나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매력”적인 직업인 것은 자기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솔직히 큰돈을 버는 건 아닌데 직업적으로는 참 매력이 있죠. 공무원이라는 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야근이라는 게 없으니까, 사기업에서는 대부분 힘들잖아요(참여자1).

이들이 하위 공무원직을 선택한 것은 임금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근무시간이 길지 않고 노동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균형 있게 보낼 수 있으리라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V. 진로 선택 과정의 특성

청년들의 진로 선택에는 어떤 영향력들이 관여하는가? 이들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진로 선택 과정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결정 및 직업 선택과 관련하여 대학과 전공 선택, 가족의 관여와 지원, 경력 계획으로 나누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1. 점수에 맞춘 진학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 전공은 다양하다. 그러나 대학 진학 후 4년 이상이 흐른 지금 이들은 모두 전공과 상관없이 공무원을 희망하여, 직업 선택은 대학 전공과 무관한 것이 되어버렸다. 전공과 학과 선택이 진로선택의 실질적 출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공이

직업 선택의 기반이 되어주지 못한 현상은 흥미롭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직업 적성과 흥미를 생각해본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한 채 점수에 맞춰 진학을 결정하였다. 자신의 직업 적성과 심리적 특성을 탐색하여 이를 직업 영역의 특성과 연결한다는 합리적 진로선택 패러다임은 이상적 이론일 뿐 이런 현실에서는 설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수도권 인근 대학으로 진학했던 참여자 5의 사례는 고등학교에서의 진학지도가 점수별 대학 '배치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실을 드러내준다. 영어교사가 되고 싶었던 참여자 6 역시 진로 선택의 기준이 된 것은 수능 점수였다고 한다.

성적으로 간 거죠. 자기가 어디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크게 안 해봤고요. 진로 상담할 때도 어머니가 같이 가면 배치표라고 그러잖아요?. 내신을 봤을 때 여기는 갈 수 있겠다, 여길 한번 가보는 게 어때냐. 그러면 별생각 없이 거기 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 여기 넣으면 떨어진다는데 뭐 그런 식이죠(참여자 5).

저는 계속 영어 선생님을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진로랑은 다르죠? 영어 교육학과를 진학했어야 하는데 현실과 타협을 하고 수능 점수와 맞춰보니까... 또 제가 대학에 원서 쓸 때 한참 공무원 열풍이 불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참여자 6).

진로탐색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향후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겨지며, 이는 현실적으로 서열 위계의 상위를 차지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직업의 선택과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자신'이라는 점에 필연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여자 2의 사례는 보여준다. IT 개발자로 6년을 일한 뒤에야 그 직업이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그는 자신이 20대 시절을 "멀리 돌아왔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점수에 맞춘 학과 선택이었다고 진단한다.

(멀리 돌아온) 원점은 제가 아무래도 고3 때 충분히 진로를 알아본 것도 아니고 적성을 생각해 본 것도 아니고 단지 수능에 맞춰서 점수에 맞춰서 뭐 과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하고 그 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취업도 그 과에 맞춰서 하게 되고 자격증을 따고 그 과에 맞춰서 따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과가 중요하다고 많이 느껴요(참여자 2).

취약한 진로탐색 경험과 입시 중심 교육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악순환한다. 자신에 대한 탐색도, 직업 세계에 대한 탐색도 미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전공 선택은 직업 선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참여자들은 직업 세계에서의 경험조차 무의미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자신에 대한 관심과 세상에 대한 탐색을 유보한 채 대학 입시에 몰두했던 청소년기를 지난 청년들은 20대를 “멀리 돌아”와 취업 준비라는 또 다른 입시에 뛰어들었다.

2. 가족의 강한 후원

학부모들이 자녀의 대학입시를 전폭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학벌에 따라 자녀의 성취 담보력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이종각, 2005). 그런데 대학 졸업이 취업과 안정된 고용을 보장해주시 못하는 현실에 부딪치자 학업성취에 대한 후원은 취업준비로 옮겨간다. 자녀의 직업 선택과 취업준비에 대한 부모의 관여는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공무원 수험생들은 대학 졸업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시험 준비에만 전념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과 생활비는 대부분 부모들이 부담한다. 부모들은 한 달에 적게는 5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9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2~3년 동안 부담하는데,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노량진 공무원 시험 준비생 대부분이 이런 후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 시험 준비는 “합격만 하면 끝나는 게임”이라는 연구 참여자 6의 언술에서 취업준비 후원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일종의 투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지금 제가 혼자 아니기 때문에... 동생들도 지금 다 대학생이에요. 4명이 지금 총 대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부담이 되죠. 그래도 돈이 그렇게 투자를 해도 일단 합격만 하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보장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께서) 그건 아끼지 않으시는 거 같은데(참여자 6).

부모가 자녀의 직업 선택과 취업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이것이 당사자 개인의 과제가 아니라 가족 사업으로 인식된다는 점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된 데는 부모의 권유가 크게 작용했고,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더라도 결정을 크게 반기거나 후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형제자매가 먼저 공기업,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동생이 그 뒤를 잇거나 함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참여자 1은 현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발령대기 중이지만 면담 내내 공무원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이라고 반복하여 말하고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무원을 택했던 이유는 “어머니가 너무 원하셨기 때문”이다. 아래의 언급을 보면 그가 직업 선택을 가족의 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제 욕심만 부리는” 처사이며, 직업 선택은 결국은 “가족들도 봐야” 하는 과업이라는 것이다.

부모님들이 공무원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죠. (다른 직업을) 생각은 많이 했죠. 근데 저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직업도 중요하잖아요? 직업이야 뭐 저 혼자 산다면 아무 상관없죠. 아직 젊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지만 부모님께서, 어머니가 너무 원하시고 그러니까 제 욕심만 부릴 수도 없는 거고(참여자 1).

취업이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사업으로 인식된다는 점은 아래 참여자 2의 사례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그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직장을 다니면서 오빠의 공기업 취업 준비에 필요한 돈을 지원했고, 오빠가 취업한 후 가족은 다시 그가 시험 준비에 전념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경쟁이 격화되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한 노력은 가족 단위의 자력 구제 시스템 속에서 작동되는 것이다.

(직장을 다닐 당시 월급을) 제가 필요한 거 빼고는 거의 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오빠가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빠한테 지원했구요. 저희 오빠 같은 경우도 공기업 시험 준비를 한 적이 있어서, 공부를 오빠도 2년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는 거 같아요. 집에서도 공부하고 나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참여자 2).

이렇게 부모의 전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자녀들은 자신을 개인보다는 가족의 일원으로 느끼기 때문에 취업에 실패하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느낀다. 부모의 기대와 후원은 이들에게 심리적 부담인 동시에 강력한 자기관리의 기제가 된다. 공무원 채용 시험에 떨어지거나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이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부모다.

슬럼프는 부모님 생각하면 슬럼프 이겨내야죠. 이 나이에 이려고 있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놓고 싶을 때 부모님 생각하고 주위에 잘 나가는 친구들 생각하고 그러면 정신이 차려지기는 해요(참여자 9).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때 어머니께서 일하고 계실 때였어요. 아버지 장사 잘 안 돼서 청소하러, 그래서 돈을 대주시는데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새벽까지 나갔다가 오시는데, 엄마는 근데 개의치 않았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안 됐지?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될 때까지 해보래요(참여자 5).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기획하기보다는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구성해내었다. 진로 선택도 이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는데 부모의 가치관과 후원은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매우 강력한 준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는 부모의 학업성취에 대한 후원이 직업성취에 대한 후원으로까지 연장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주고 주고 있다.

3. 자격증 준비 중심의 진로 계획

긴 시간과 많은 자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공무원 시험 합격을 최종적인 진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부분 또 다른 직업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무원이 안정된 직업이라고는 하지만 더 이상 완전 고용이 보장되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 공무원직은 그 자체로 자기실현을 하기 어려운 직업이므로 자기계발을 하고 싶다는 것, 정년 이후의 일을 준비하고 싶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들이 이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 선택한 것은 공통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이었다.

참여자 5와 참여자 8은 현재 채용 시험에 합격하고 발령 대기 중이지만 벌써 다른 자격증 시험 준비를 계획하거나 시작한 상태이다. 참여자 5는 이미 세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절차와 방식을 다 알아보고, 스터디 팀에 가입하였으며, 참여자 8은 현재 지방 세무직에 합격하였지만, 내년에 국가직 시험을 위해서 다시 학원을 등록했다.

이들의 언술에서는 가장 익숙하고 자신 있는 미래 준비 방식이 시험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살아오는 30여년의 시간 동안 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생으로서 대학 입학시험

을 준비하는 시험으로 보냈으며, 취업 준비 또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시험 준비로 보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토익 공부를 하는데 세무사 한번 따보고 싶어요.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겠더라고요. 우선 토익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영어 시험이 토익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오전에는 공부를 좀 하고요. 스터디를 정해서 내일부터 당장 하거든요(참여자 5).

내년에 국가직을 한번 봐보려고요. 국세직에 관심이 있었는데 하고 자격증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자격증은 세무사 자격증을 따야죠. 학원 끊어봤는데 잘 다닐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많이 흐트러져서...(참여자 8).

자격증 취득을 중심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경향은 아직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다. 참여자 3은 장래 계획을 얘기하면서 ‘자기계발’을 곧 ‘자격증 취득’으로 등치시키고 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 자격증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자기 계발 하는 거는 괜찮은 거 같아요. 막연하게 법무사 자격증 아니면 그 위에 앉아 있더라도 다른 자격증 하나 있으면 괜찮을 거 같다. 뭐 공인중개사도 괜찮고, 아니면 주택관리 자격증도 괜찮고 하니까. 퇴직했을 때 놀기 보다는 그런 자격증 하나 있으면 괜찮을 거 같아요. 그리고 시간 남을 때마다 공부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니까요(참여자 3).

연구 참여자들의 언술은 평생취업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생학습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조정이 상시화되는 시대에 고용불안과 실직이라는 노동시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능력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진다(이병희, 2006). 그런데 이때의 학습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성숙을 일컫는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상품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한 학습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은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계발의 필요성은 일종의 강박처럼 각인되며, “시간 남을 때마다 공부”를 함으로써 이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회구성원이라는 느낌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가는 것이다.

VI.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준비생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는지, 어떤 영향과 특성이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청년층 진로 선택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무원 시험을 노동시장에서의 약자에게도 기회가 열려있는 공정한 경쟁으로 인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하며,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하고 있었다. 직업 선택의 기반이 되는 대학 전공은 적성이 아니라 점수에 의해 선택되는데, 이 과정에는 부모의 후원이 강하게 개입하며 자녀의 진학과 취업이 일종의 가족 비즈니스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년들은 직업 선택이 이제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사회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이를 위해 택하는 주요방식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공부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좋은 일자리'의 기준으로 높은 임금이나 사회적 위세보다는 고용 안정성과 균형 잡힌 삶의 유지 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인 공무원은 초임이 월 급여 130만원이라 하더라도 고용이 안정되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직업이었다. 또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노동 강도가 높지 않아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최근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진로개발 모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임언, 2004). 그러나 이 연구에서 드러난 것은 청년들은 불확실성과 가변성에 대처하기보다는 이것을 피하는 방식으로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을 완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마련되지 않을 경우 청년의 구직 '눈높이 조절'을 위한, 혹은 불확실성에의 도전을 강조하는 진로교육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둘째, 진로 선택과 준비 과정이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드러났듯이 부모는 자녀의 직업 선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물질적 후원자이자 심리적인 관리자의 역할을 자녀의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까지도 수행한

다. 이러한 현상은 탈근대 사회로 이행하면서 한국사회의 교육열이 입시에서 취업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주장(서근원, 2008)과도 맥을 같이 한다. 사회변화의 폭이 클수록 불안한 미래를 함께 헤쳐 갈 공동체라는 인식은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청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의존, 독립이 지연되는 진로 지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청년층의 취업 유예 혹은 진로 지체가 개인이나 해당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특유의 가족주의와 교육열이 결합된 산물로서, 향후 청년층의 일의 세계이행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주의와 교육열이 주요 연구 주제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자녀의 진로 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진로 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진로교육 영역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말해 준다.

셋째, 청년들의 진로 준비와 계획은 주로 수험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들의 진로 선택 과정에서 자기 탐색과 직업 세계에 대한 탐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학 입시 준비, 취업 시험 준비, 또 다른 자격증 준비로 이어지는 시험 준비가 진로 개발 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진로 과정에서는 개인의 성격 특성과 작업 환경의 연결을 모색하려는 시도나, 경험의 누적적인 발달의 결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를 찾기 힘들었다.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택하려는 청년들의 진로 선택 과정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지 못하고 공무원과 같은 특정 일자리에의 진입이라는 목표로 동일하게 변형되어가는 '사회적 동형화' 현상을 겪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전공, 경력, 개인적 관심사가 서로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택하고 설계한 진로는 결국 개인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한 직업과 그 준비로 동형화된다. 이는 비단 이 연구의 참여자들 뿐 아니라 대기업이나 공무원 취업 준비를 위해 취업을 유예하고 있는 청년층 대부분에 해당되는 특성일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 더해 보면 전통적인 진로 발달론이나 진로 선택론에서 주장하는 합리적 진로 선택론이, 진로교육이 지향하고자 하는 교육적 규범일 수는 있어도 최근 우리나라 청년들의 진로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독립적 개인의 합리적 진로 선택이라는 전통적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선택의 특성을 밝히려는 학문적 노력들이 더욱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향후 청년 진로 선택의 특성을 규명하는 다양하고 세밀한 후속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권혜자(2010). 「청년층 일자리 변화와 연령세대별 고용정책」, 『2010 한국고용정보원 심포지엄 자료집-청년층 취업 활성화 방안』, 한국고용정보원.
- 김태일(2009). 「대학생의 공무원시험 준비가 재학 및 취업행태에 미치는 영향」, 『2009 한국고용정보원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고용정보원.
- 노동부(2010.1). 「청년고용 중장기 전략 계획(안)」, 노동부 내부자료.
- 박성재·송민수(2010). 「공무원 시험 준비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고용정보원.
- 방하남·이상호(2006). 「『좋은 일자리』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 『한국사회학』, 제40집 1호, 93~126쪽, 한국사회학회.
- 서근원(2008). 「교육열의 의미에 관한 한 해석 -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관련해서」, 『교육인류학연구』, 제11권 1호, 177~201쪽, 한국교육인류학회.
- 서우석(2008). 「직업의식의 변동에 관한 사회학적 해석-직업특성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1권 1호, 71~96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오호영(2006). 「공무원 채용시험과 대학교육」, 『직업능력개발연구』, 제9권 1호, 49~79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병희(2006). 「평생학습과 노동시장 위협」, 『노동정책연구』, 제6권 3호, 1~32쪽, 한국노동연구원.
- 이종각(2005). 『한국의 교육열, 세계의 교육열』, 하우.
- 임언(2004). 「청년실업에 대비한 진로교육의 방향」, 『진로교육연구』, 제17권 2호, 144~156쪽, 한국진로교육학회.
- 채창균·김태기(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성과 결정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제28권 2호, 89~107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통계청(2009. 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고령층).
- 한국고용정보원(2010). 「대학생 직업 및 취업 인식조사」.
- Clark, A. C.(1998). "Measures of Job Satisfaction. What Makes a Good Job? Evidence

- from OECD Countries”, Labor Market and Social Policy-Occasional Papers, No.34, Paris: OECD.
- Creswell, J. W.(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조홍식 외 역(2005).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전통』, 학지사.
- Dawis, R. & Lofquist, L.(1984). *A Psychological Theory of Work Adjustmen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 Duffy, R. D. & Dik, B. J.(2009). “Beyond the Self: External Influences in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58, pp. 29~43.
- Greenhaus, J. H., Callanan, G. A. & Godshalk, V. M.(2000). *Career Management*. 탁진국 역(2002). 『경력개발 및 관리』, 시그마프레스.
- Holland, J. L.(1985).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NY: Prentice-Hall.
- Krumboltz, J. D.(1996). “A Learning Theory of Career Counseling”, in Savickas, M. L. & Walsh, W. B.(eds.), *Handbook of Career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CA: Davies-Black.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7, pp. 36~49.
- Ritter, J. A. & Anker, R.(2002). “Good Jobs, Bad Jobs: Workers’ Evaluations in Five Countries”, in *International Labor Review*, Vol.141 No.4.
- Savickas, M. L.(2002). “Career Construction: A Development Theory of Vocational Behavior”, in Brown, D., Brooks, L.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4th ed., pp. 149~205). San Francisco: Jossey-Bass.
- Super, D. E.(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Brown, D., Brooks, L.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abstract

A Study on Young Adults' Job Selection
- The Case of Civil Service Examinees

Chung, Yonsoon

This qualitative study explores how young adults who prepare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choose their career paths and select their jobs. Interview was used to collect rich data for in-depth understanding of their career choice procedures.

The findings show that the criteria of job selection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airness, job security, and self-caring. Many socio-cultural factors influence their career choice procedures. They chose their college major based on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grade, not on their occupational aptitudes or interests. Strong support from parents about this selection strengthened the tendency, and getting a job is prioritized as a family concern and pursued collectively like a family business. They all recognize that lifelong learning for lifelong employability gets important, but they choose to study hard to get certificates as many as possible rather than developing themselves in various areas.

Keyword: Job selection, Youth-employment, School to work transition,
Civil service examination